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27 호 | 2017.8.31

4 차산업혁명 시대 들도 보도 못한 직업 '들보잡' 뜬다 (매일경제, 7.31)



4차 산업혁명시대 '들보잡' 뜬다
(출처: 매일경제 7월 31일)

매일경제·딜로이트컨설팅 60개 유망직업 선정

2017년 7월 31일 매일경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60개의 유망직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술개발 속도', '인간 대체 가능성',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했다. 선정된 직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었다. 1. 인공지능(AI) 관련 직업: AI 엔지니어, AI 윤리학자, AI 규제 전문가 등. 2. 로봇 관련 직업: 로봇 엔지니어, 로봇 윤리학자, 로봇 안전 관리자 등. 3. 자율주행 관련 직업: 자율주행 엔지니어, 자율주행 윤리학자, 자율주행 안전 관리자 등. 4. 가상현실(VR) 관련 직업: VR 엔지니어, VR 윤리학자, VR 규제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들보잡' 뜬다
(출처: 매일경제 7월 3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직업 중 '들보잡'이 뜬다. '들보잡'이란 '들(들보잡)'과 '보(보잡)'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의미한다. '들보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인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다. '들보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인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다.

잡' 뜨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유연성 더 높아야

4차산업혁명 낙오뎀 일자리 164만개 날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전망

신산업 증가 분야 + 단계적 저축	68만개
신산업 지원 + 단계적 저축	33만개
신산업 초기 정착 + 단계적 저축	130만개
신산업 지원 + 단계적 저축	164만개

활짝 열릴 수 있지만 신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노동집약적인 일을 자동화 로봇에 내주지만 만개 일자리 소멸이라는 재앙과 맞닥뜨릴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자동화 등으로 노동 강소, 시간 등 사라지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 계약 등 업무 성격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없다면 25위에 랭크된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다.

7월 30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 유망직업'을 선정한 결과, 60개의 '들보잡'이 미래 일자리 창출 보고(寶庫)로 추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들보잡의 특징은 빠른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첨단 연구개발(R&D)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풍부한 인간적 감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 플랫폼에서는 스마트 병원, 3D 바이오 프린팅, 스마트 학교(교육) 등이 미래 신산업으로 꼽힌다. 이 때 유망한 들보잡은 생체로봇 외과의사,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가상현실 교육 전문가 등이다. 도시 플랫폼에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스마트 재난 대응 전문가, 지능형 범죄정보 분석가, 범죄예방환경 전문가 등 직업이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중략)**

4차 산업혁명 시대 들도 보도 못한 직업 '들보잡' 뜬다 (7.31)
[사설] '들보잡' 뜨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유연성 더 높아야 (8.1)

소할 수도 있고, 최대 68만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류에 잘 편승할 경우 이 낮은 것이다. 미래적 '들보잡'이 대거 탄생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



잠실 시그마타워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 (더벨, 8.7)

국민연금이 딜로이트 안진을 내세워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시그마타워' 매각을 진행한다. 2년 전 실패를 딛고 거래를 성사해 낼지 주목된다. 8월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주)코크렙 NPS 제 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잠실 시그마타워 매각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낙점했다. 코크렙 NPS 제 1 호 관계자는 "현재 딜로이트 안진이 매각 마케팅을 하고 있고 입찰은 8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며 "우협 선정은 9월 초중순에 이뤄지고 11월 말 정도로 거래완료(Deal Clos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건설 매각 본 입찰, 2개 업체 참여 (이데일리, 8.4)

7월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 한일건설 매각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총 5곳의 업체가 참여했다"며 "건설사인 곳도 있고 다른 업종의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전에 SM 그룹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SM 그룹은 울 들어 매물로 나온 삼부토건, 경남기업 매각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중 경남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다.



Asian regulators stepping up as cyberattacks increase: Deloitte (THE BUSINESS TIMES, 8.16)

Asia-Pacific financial services key target for cybercrime
 16 August 2017 by Hope William-Smith | 0 Comments
 Regulators across the Asia-Pacific have increasing concerns that global cybercrime threats will continue to be most prevalent with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which remains largely unprotected by overtly localised regulation, according to Deloitte.

United approach needed on cyber security: Deloitte
 Deloitte has highlighted the regulatory challeng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ys regulators in the region must work with a unified approach to overcome fragmentation, according to Deloitte's Cyber regulation in Asia report.

The Bridge Cambodia
 Rare Freehold Commercial Shops next to 5 Star Hotel For Sale with 70% GRP. Pm US\$148K

IT 강국 한국이 사이버 범죄에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 일 딜로이트 글로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이버 규제(Cyber Regulation in Asia Pacific)`보고서를 인용,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5,750 억 달러(한화 약 655 조 4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격의 주요 타깃은 금융서비스 부문이었다.

디지털 경제에서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은 피할 수 없으나, 적절한 규제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서영수 딜로이트 안진 사이버 보안 담당 파트너는 "빠르게 변해 가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국의 능동적인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기업들은 사이버 교육 및 외부 소싱 등을 통해 사이버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This communication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nd use only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None of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7.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